

최근의 선위결정법

정세모 (학주해양대학교교수)

선박을 목적지까지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방법을 항법이라하며,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선박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선위결정법에는 기지의 출항지로 부터 선박이 이동한 궤적을 계산하여 현재의 위치를 추정하는 방법 (예: 관성항법), 지표상에 있는 기지의 지점으로 부터의 상대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위치를 알고 있는 천체 또는 인공위성으로 부터의 상대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들에 요구되는 조건으로는 그 측정선위의 신뢰성과 정확성은 물론 주야 및 천후를 불문하고 항시 측정이 가능할 것, 단시간에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소요되는 설비가 염가이고 또는 취급자의 교육훈련이 용이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측정매체로 전파를 이용하는 전파항법 또는 위성항법이 최근 급속한 발전을 보며, 과거의 광을 매체로 한 시각적인 측정에 대신하고

있으며 도는 발달된 자동제어공학 및 전기전자공학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본교에서는 항해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분들의 간단한 이해를 위하여, 전파항법,
위성항법 및 관성항법의 개요와 현황을 교전적인 항
해학의 역사와 더불어 간단히 소개한다.